범해 스님 "출가 장려 사업 강화 · 확대"

조계종 교육원, 신년간담회서 주요사업 밝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출가자 감소에 대응방안 제시
현장 출가상담 인력 발굴·지원
승가교육 질적 향상에도 노력

"우리 종단은 시대 흐름에 따라 종교인·출가자 감소로 승가, 재가, 사찰, 종단의 활로를 열어가야 하는 숙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교육원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가자 수 확대와 질 높은 승가 교육을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범해 스님·사진)은 출가 진흥에 역점을 둔 종책 사업을 펼친다. 출가지도법사 현장 출가상담 확대, 출가상담사 스님 발굴 및 지원, 종단 전반의 출가 교육, 승가교육 질적 향상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출가자 수 증대에 진력할 계획이다.

제10대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기2568(2024)년 종책기조와 주요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종책은 전 교육원 집행부가 구축한 출가 및 교육 종책을 기반으로 세밀하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활동 역량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출가와 승가교육이 종단의 백년대계"라고 천명한 범해 스님은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금씩 개선해 올바른 정법의 지혜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제10대 교육원은 종단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출가장려 사업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새로운 콘셉트의 출가 포스터를 제작·배포해 홍보하는 것은 물론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출가지도법사를 발굴·지원한다. 본사별로 출가지도법사를 둬 행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단의 출가 종책을 발빠르게 현장에 실현해 발심출가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를 위해 종단 군법사·교법사·템플스테이 지도법사를 출가상담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포교원과 협업해 종립학교, 대학생, 군장병 등 청년들이 밀접한 곳을 찾아 출가상담을 진행하고 출가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선다. 각 사찰에서 출가 관련 사업 및 홍보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마련하는 등 출가와 관련된 각종 규정도 재정비한다.

범해 스님은 "지난해 현장 출가 홍보와 상담을 시행하는 등 종단의 전폭적인 관심과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2022년도 61명이었던 출가자 수가 2023년도에 84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해마다 조금씩 출가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더욱 적극적인 출가 장려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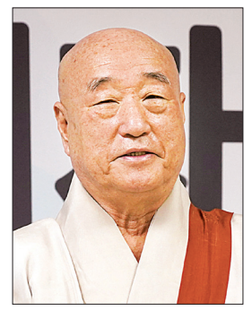
교육원은 학인 수 감소로 교육 분위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승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출가자 감소는 학인 수 감소와 상주교수 감소로 이어져 승가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교육원의 설명이다. 때문에 기본교육기관 설립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기관 대상의 연구프로젝트 지원, 상주교수 학술 세미나 개최, 학인 수행프로그램 개발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승가공동체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교육원은 동국대, 승가대학, 승가대학원, 특수대학 등 조계종 소속 한인의 인재양성을 비롯해 교육교역자 스님의 연구 및 교육기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범해 스님은 "교육원 존재의 이유는 출가자 확대에 있다. 출가는 승가의 기반이며, 교육과 교재 편찬은 불교의 미래이고 연수는 전법포교의 꽃"이라며 "제10대 교육원은 백 년을 인욕해 선정과 지혜의 날개로 승천하는 푸른 용의 기상과 같은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정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생명나눔, '글로벌' 의약지원 나선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비롯해
의료비 지원 등 국내 넘어
불교국가에 자비 손길 건네
10월 중 창립 30주년 행사



1994년부터 현재까지 8만명에 달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접수한 (사)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불교국가를 위한 의약품 지원사업에 나선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사진)는 1월 23일 서울 견지동 법인사무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사업 실적과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 눈여겨볼 사업으로는 국내가 아닌 국외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한 해외 의약품 지원 연대 사업이 꼽힌다.

이 사업은 2021년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글로벌생명나눔과 함께하는 것으로, 의료 인프라가 미흡한 국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글로벌생명나눔은 저개발국가에 의료 인프라를 지원하는 국제구호 NGO다.

생명나눔 법인 이사장 일면 스님은 "법인 활동이 국내 사업에 머물러 있어서 불교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생명나눔과 뜻을 모았다"며 "잠정적으로는 오는 5월 1차로 캄보디아에 의약품을 지원하려 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의약품 배송비를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동국대 측 학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기념식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공익법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장기·인체조직 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취약계층 환자치료비 지원 등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부처님의 자비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단체로 발전하도록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선업 스님 '전법 · 포교 원년의 해' 선언

조계종 포교원, 1월 23일 신년기자회견 개최



매년 11월 11일 전법의 날 제정
'부처님 법 전합시다' 원력으로
청년 포교 지원 방향 구체화도

전법 GO를 목표로 출범한 제9대 조계종 포교원이 2024년을 '미래 전법 포교 원년의 해'로 삼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역량 결집에 진력한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 스님·사진)은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청년대학생 포교 활성화' '부처님 법 전합시다 캠페인' '포교 원력 결집 법회' 등 전법 활동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포교원 별원 30주년을 맞아 제9대 포교원은 지난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전법 포교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포교 현장을 더욱 활기차게 준비하겠다"며 "부처님 법을 행하고, 전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종단 미래세대인 '청년 대학생 포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한다. 지난해 상월결사와 청년·대학생 포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포교원은 올해 상월결사·군종교구와 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청년 포교 지원 방향을 구축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포교를 위한 전법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대학생 불자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캠퍼스에서 마음껏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학 법당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포교원은 개선이 필요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2021년에 4곳, 2022년에 6곳, 2023년에 4곳 대학 법당의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한 바 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원력으로 한 포교 원력 결집에도 나선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11월 11일을 전법의 날, 매월 11일을 전법 실천의 날로 각각 제정, 구체적인 전법 실천을 이끈다. 올해 5월 육바라밀이 담긴 '전법 실천 강령'과 '실천 점검표'를 보급해 개개인에게 전법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포교에도 매진한다. 4월~7월 서울, 호남, 영남, 충청 등 권역별 결집대회를 개최해 포교원 산하 조직을 중심으로 결집의 장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올해 9월 예정된 '2024년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회'를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지난해 총무원·교육원·포교원 등이 모여 결집대회의 공식 명칭과 일정을 확정했다. 포교원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만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선업 스님은 "탈종교화 시대 오롯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진력한다면 대중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숨 쉴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 선언을 마음에 새기며 제9대 포교원과 함께 전법의 길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제7기 종평위 위촉…위원장에 향문 스님

진우 스님, 1월 25일 임명



조계종 제7기 종교평화위원으로 위촉된 스님들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갈 조계종 제7기 종교평화위원회(종평위)가 구성됐다. 신임 위원장에는 향문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평위 위원장 향문 스님(중앙종회의원)과 위촉직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위원장 향문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현무·법륜 스님과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금해 스님,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이상훈 교수불자회장,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 스님과 포교원 포교부장 남전 스님이 참여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는 다종교국가로, 비교적 종교 간 충돌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가끔 갈등이 있긴 하지만 불교가 앞장서 이웃 종교와 교감하고, 종교 간 평화를 위해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며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종교 간) 조율 잘해서 국민과 국가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 향문 스님은 "오랜 기간 종평위가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 놓치고 있는 현안들이 많다"며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 종교 간 갈등과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24년도 제7기 수강생 모집 中

佛敎 天文學 강좌

《율장》〈대품〉 1 : 7 - 석가모니께서는 초전법륜 시 "야사"에게
보시와 지계 그리고 天上(天文)에 대해 가르침으로 6번째 아라한과를 이루게 하였다.

신 청 방 법 : 현재(6기)교육 청강 후 등록
교육 청강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2월 한)
교육 신청자격 : 승려 및 전법사, 사찰운영 직접 관계자
청강 교육장소 : 수원시 장안로 418-15(수도사)
문 의 : 010-4317-9500

하늘 맘 알기 (불교천문학 강원)